

격토를 단 우리 말 부사의 특징에 대한 분석

양 성 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고 아름다운 발음과 풍부한 어휘 그리고 섬세한 의미와 치밀한 문법 구조를 가진 세상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언어이다.

부사는 그 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새 단어조성능력에 있어서 다른 품사들 못지 않게 그 의미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품사들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토를 단 부사(또는 《형태》부사)들중에서 일부 제한된 격토를 달고 나타나는 우리 말 부사들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토를 단 부사(또는 《형태》부사)란 말은 일반적인 격형태나 형태단어들과는 달리 정연한 문법적형태체계를 이루지 않으며 일부 굳어지고 제한된 토만을 달고 쓰이는 경우들을 가리켜 조건적으로 붙인 명명이다.

우리 말 부사가 여러가지 토들가운데서 대상토의 하나인 격토를 달면서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로, 격토를 단 우리 말 부사들에는 조격토 《로(으로)》형과 여격토 《에》형 두가지가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말 문법규범에서의 격은 《주격, 대격, 속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의 8가지로 체계를 이루고있다.

그런데 격토를 달고 나타난 부사들가운데는 이 8가지 격체계중에서 다른 격토는 찾아볼수 없고 다만 두가지 즉 《로(으로)》(조격토)와 《에》(여격토)뿐이다.

자료적으로 볼 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 2007.)에 올라있는 토를 단 부사들을 장악한데 의하면 《로(으로)》형의 부사와 《에》형의 부사는 각각 70여개씩이었다. 결국 격토를 단 부사는 총 140여개로서 전체 토를 단 부사 400여개중 35%를 차지하고있다.

격토를 단 부사들은 하나의 토를 취한것이 기본인데(《그까지로》와 같이 일부 두개의 토를 단것도 간혹 있다.) 그 구성이 기본적으로 명사(일부 대명사)나 부사 등의 말뿌리뒤에 격토를 달면서 만들어졌다.

례; 《로(으로)》형; 갓으로, 성심성의로, 장차로, 절로, 점차로, 때로, 때때로, 우격으로, 맛맛으로, 통으로, 통채로, 억지로, 참으로 ...

《에》형; 단숨에, 비밀리에, 이에, 제깎에, 엉겁결에, 부지불시에, 은연중에, 한꺼번에, 어느덧에, 흥깁에, 뜻밖에 ...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격토를 단 부사들가운데는 격토가 고유어요소의 뒤에 첨가된 경우도 있고 한자말요소의 뒤에 첨가된 경우도 있다.

둘째로, 격토를 단 우리 말 부사들가운데는 자립적인 품사들이 굳어져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것이다.

그 대부분은 자립적인 명사(일부 대명사)나 부사들이 때때로 일정하게 제한된 토를 달고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것들이다.

그가운데는 우선 명사(일부 대명사)나 부사가 제한된 격토를 달고 완전히 굳어져 토를 단 부사로 넘어간것이 있다.

례; ◦명사(일부 대명사)로부터 토를 단 부사로 넘어간것

날 → 날로

단김 → 단김에

통채 → 통채로

당초 → 당초에

◦ 부사로부터 토를 단 부사로 넘어간것

정말 → 정말로

장차 → 장차로

참 → 참으로

종당 → 종당에

그가운데는 또한 명사나 부사로 쓰이면서 때에 따라 일정한 토를 달고 굳어져서 부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사전에서도 해당한 명사나 부사로서의 품사이름을 밝혀준 다음 뜻을 주고있으며 그안에서 일정한 토를 달고 쓰이는 부사에 대하여 설명을 달아주고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는 해당 명사나 부사가 일정한 토를 달고 부사로 쓰인다는것을 짚어 밝혀주거나 굳어진 단어《형태》만을 주고 부사로 찍어서 밝히지 않고있다.

◦ 부사로 밝혀준 경우

미구¹(未久) [명] ① 《미구하다》의 말뿌리적단어.

② (《미구에》형으로 부사로 쓰이어)얼마 오래지 않아.

례: 미구에 점령할 과학의 높은 봉우리.

: 달빛은 미구에 뜰안에 가득찼다.

종당(從當) [부] ① 결국에 가서는 꼭.

② 결국 또는 끝내.

③ (《종당에》형으로 부사로 쓰이어)결국에 또는 마침내.

례: 밤새껏 씨름하던 끝에 종당에는 제힘으로 수학문제를 풀어 내교야말았다.

...

◦ 부사로 밝혀주지 않은 경우

제풀 [명] (주로 《제풀로》, 《제풀에》형으로 쓰이어) 《저혼자, 저절로 또는 제바람에》의 뜻.

례 : 제풀에 흥이 나다.

제풀에 성이 풀리다.

제풀에 넘어지다.

제풀에 꼭지가 물리나다.

...

우의 실례들에서도 단어뒤에 조격토 또는 여격토가 첨가되였다.

이것은 명사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2중품사적성격을 보여주고있으며 부사인 경우에

는 그것이 토가 없이 쓰이거나 일부 제한된 토를 달고 굳어져서 부사로도 쓰인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세조선어에서도 명사의 일정한 격형태가 부사로 굳어진것을 볼수 있다.

토를 단 부사들가운데서 대부분은 부사가 직접 이러저러한 토를 취한 모양의 부사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사전에도 독자적인 올림말로 선정되어 오르고있다.

자립적인 품사들이 토를 달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나 부사뿐만이 아니다. 특수하게 보통의 말과 글에서는 문법적형태를 이루지 않고 쓰이는 무형태어인 관형사가 일부 격토를 취하고 토를 단 부사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

《별로》, 《새로》 등의 부사들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관형사로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부사들은 많지는 않지만 언어생활에서는 자주 쓰이고있다.

례; 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수학문제를 제껴 풀었다.

대동강반에 아이들의 궁전—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이 일떠선데 이어 평양양로원이 새로 푸른 추녀를 폈다.

셋째로, 격토를 단 우리 말 부사들가운데는 불완전명사나 덧붙이와 같이 일부 비자립적인 언어적단위뒤에 격토가 첨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것이다.

실례로 불완전명사 《때문》(방언에서는 《따문》)의 뒤에 여격토 《에》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부사 《때문에》(《따문에》), 앞붙이 《생-》에 조격토 《으로》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부사 《생으로》 등을 들수 있다.

례; ○ 우리가 당앞에 맹세한 날자는 며칠 남지 않았소. 때문에 나는 동무들에게 다 음과 같은것을 호소하고싶소.

○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우지끈 하고 고목이 생으로 나가 넘어지는 소리가 울리였다.

불완전명사나 덧붙이들은 비록 어휘적의미는 가지고있으나 그것들은 언제나 비자립적인 언어적단위들이다.

지난 시기 《헛짜》, 《푹내기》, 《애송이》, 《외롭다》 등과 같이 극히 부분적이지만 앞붙이와 뒤붙이만 있고 말뿌리가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견해도 제기되었었다.

실지로 부사들가운데는 우에서 실례로 든 경우와 같이 자립성이 전혀 없는 불완전명사나 덧붙이들의 뒤에 토가 첨가되어 새 단어 즉 토를 단 부사를 이룬것이 존재하고있다.

우리 말에서 부사는 명사나 동사다음으로 그 량이 많은데 기원적으로 볼 때 상징부사는 말할것도 없고 다른 부사들도 대부분이 고유어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는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